

데이식스 “성공 요인은 입소문…늘지 않는 음악 할게요”

모든 멤버 군 복무 마치고 첫 컴백
3년 공백기 동안 음원차트 역주행
“우리가 해온 것들 공감해준 것”
“앞으로도 지금처럼 음악할게요”

밴드 '데이식스(DAY6)'가 금의환향했다. 보이그룹들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백기에 이전에 발표한 곡들이 음원차트에서 역주행하며 재조명 받았다. 팀의 인지도는 높아졌고 컴백을 기다리는 팬들은 더 많아졌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일기에 흥분할 수도 있지만, 데이식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들의 음악을 한다.

새 미니 앨범 '포에버(Forever)'은 데이식스가 3년간의 공백기를 마치고 발표하는 것이다.

무대가 그리웠던 순간들을 모아 이번 앨범을 만들었다. 타이틀곡 '웰컴 투 더 쇼(Welcome to the Show)'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 손잡고 같이 서 준 이들을 위한 세레나데다. 포스트 브릿팝 사운드 위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 요소가 더해진 이 곡은 벽차오르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데이식스를 '믿는데' (믿고 듣는 데이식스) 반열에 오르게 한 역주행곡 '예뻐어'(2017),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2019)를 함께 작업한 홍지상 작곡가가 작사·작곡했다. 기존의 데이식스의 곡들보다 밝은 이미지가 강하다.

“시작 자체는 신나는 곡을 쓰자는 거였어요. 곡을 다 쓰고 보니까 그런 곡이 없는 거 같아서 앨범의 맨 마지막 곡으로 작업했어요. 뛰기 좋은 속도로 맞춰요. 수많은 수정을 거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어요. '내 전부를 줄 테니 함께하자'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영케이)

데이식스는 '웰컴 투 더 쇼'가 팀 정체성을 대변하는 곡이 될 거라고 자신했다. 현재 데이식스가 가진 목소리와 에너지가 잘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원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곡의 형태다. 저희가 콘서트장에서 같이 불렀을 때 시너지가 엄청 큰 곡”이라며 “우리

에게 있어서 공연이 소중하다. 공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곡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백기를 지나 첫 선을 보이는 곡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남다르다. 네 멤버는 데이식스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최소한으로 풀었다. 특히 원필은 먼저 입대한 형들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해군에 들어갔다. 막내 도운도 입대 시기를 앞당겨 다녀왔다. 그 덕분에 2021년 3월에 시작된 군복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완전히 종료된 콘서트로 빠르게 씻어냈다.

“확실히 무대가 그리웠던 순간이 많았어요. 한두 번씩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았는데 '내가 무대를 그리워하는구나' 알았죠. 마이데이(팬클럽명)만 있었던 곳도 없어서 제가 마이데이를 그리워하고 콘서트를 그리워하는구나 느꼈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아 이거였구나' 했죠.”(영케이)

“군 생활을 하면서도 드문드문 시간이 날 때 '그때 재밌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함께한 팬들뿐만 아니라 멤버들과 무대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리웠거든요. 앨범 전곡을 다 들어보기도 했고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대에서 다 해소했어.”(성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처음으로 맞춘 합주에서는 팀워크를 느낄 수 있었다. 원필은 “오랜만에 합주하면서 어떡해야 하나 싶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었다고 털어냈다.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합이 맞더라. 우리가 오랜 세월 함께 있다 보니까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싶었다’며 “곡 작업할 때도 서로 서포트하는 것들이 있었다. 우리가 팀은 팀이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컴백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군대에서) 나오긴 했지만, 제가 전역하면서 우리는 이제 떨어질 일



이 없게 됐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마이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원필)

공백기 동안 대중성이 높아지는 건 이례적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가요계에서 오로지 음악으로 사랑받는 건 쉽지 않다. 차트에서 역주행하기 전까지는 잊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진은 “군 생활할 때는 불안할까 봐 아예 관심을 반대.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며 답답했다. 도운은 “우리다웠다. 항상 우리가 계획한대로 된 게 많지 않다”고 했다.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군대에 있는 동안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걸어도, 활동했던 것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거 같아요.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답해 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원필)

“늘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까지 잘해왔고 그

럼 꾸준히 잘해나가면 되겠다는 힘을 얻었어요.”(성진)

갑작스럽게 큰 사랑을 받은 뒤 새 작업을 내보이는 건 부담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하다. 데이식스 역시 부담감이 뒤따랐지만 늘 하던 것처럼 중심을 지켰다. “부담감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서 팬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음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도운)

“부담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 음악을 크게 변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좋은 부담감일 뿐이에요. 앨범 작업할 때는 기쁜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뻐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듣고 기대하는 분들, 앞으로의 우리의 음악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좋은 앨범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원필)

데이식스는 자신들이 사랑받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사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 주로 데이식스의 히트곡의 가사는 영케이가 담당한다. 영

케이 “홍지상 작곡가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프로가 되면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도 곡이 하나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음악 길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임팩트 있는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쓰고 정리해간다. 그러면서 최대한 공감하고 와닿을 수 있게 익히게 됐다”고 했다.

“데뷔 초부터 늘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밴드 사운드라서 유리한 것도 있고, 언제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를 할 수 있거든요. 데이식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마이데이 분들, 우리 음악을 듣고 좋아해 주는 분들이 한 명씩 옆 친구에게 추천해주는 입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영케이)

성적이 목표인 음악을 해오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신경쓰지 않는다. 깊고 멀리 보는 데이식스의 초점은 다르다. “예뻐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세기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곡이 됐으면 합니다.”

아직도 핫하네...정국 빌보드 핫100 19주 연속 차트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9주 연속 순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19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3월23일 기준)에 따르면, 정국 솔로 앨범 '골든'(GOLDEN)의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사이커스·르세라핌 등 빌보드200 포진

유'(Standing Next To You)는 핫100 차트 88위에 올랐다. 이 곡은 지난해 11월18일 5위로 첫 진입한 뒤 계속 100위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국 개인 곡 중 최장기 기록이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 가수로도 활동 중인 제니는 핫100에 12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 제니가 캐나다 스타 싱어송라이터 위켄드, 미국 배우 겸 가수 릴리 로즈 델로디 등과 함께 부른 HBO 시리즈 '디 아이돌' OST '원 오브 더 걸스'(One Of The girls)는 64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도 K팝 그룹이 다수 포진했다. 그룹 사이커스는

신보 '하우스 오브 트릭키: 트라이얼 앤 에러'(HOUSE OF TRICKY : Trial And Error)로 73위였다. 지난해 3월 발매한 데뷔 앨범은 데뷔 12일 만에 이 차트에 진입했다. 5세대 K팝 보이 그룹 중 데뷔 1년 만에 두 개의 앨범을 해당 차트 100위권 안에 올리는 건 사이커스가 최초다. 그룹 트와이스 미니 13집 '위드 유스'(With YOU-th)는 78위를 기록, 빌보드200 1위를 찍은 뒤 3주 연속 차트인했다. 그룹 르세라핌의 '이지'(Easy)는 83위였다.

정국의 '골든'은 100위에 올라 19주 연속 랭크됐다. 한국 솔로 가수의 음반 중 최장기 기록이다.

제이세라, '피도 눈물도 없이' OST 참여



가수 제이세라가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OST 주자로 나섰다.

제이세라는 21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피도 눈물도 없이'의 OST '서약'을 발매한다.

'서약'은 지난 2014년 가수 알리가 가창한 드라마 '황금무지개'의 OST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제이세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작품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번 곡은 '사랑이 잊혀져 갈 때 즈음', '별이 될게', '넌 내가 보고 싶지 않냐' 등 제이세라와 꾸준히 호흡을 맞춘 작곡가 고병식, 이형성이 편곡을 맡았다.

한편 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헤어진 재매가 다시 만나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다. 배우 이소연, 하연주, 오창석, 장세현 등이 출연한다.

이재훈·이동휘·최우성·윤현수...‘수사반장 1958’ 티저 공개

내달 19일 MBC 오후 9시50분 첫 방송

‘수사반장 1958’을 뜨겁게 달굴 열혈 형사들이 뜬다.

20일 MBC TV 새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측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형사 ‘박영한’(이재훈), ‘김상순’(이동휘), ‘조경환’(최우성), ‘서호정’(윤현수)의 모습이 담겼다. ‘촌놈 형사’ 박영한의 등장으로 영상은 시작된다. 이어 박영한과 함께 활약하는 수사 1반 형사들이 소개됐다. 중남경찰서 내에서 ‘미친 개’로 소문난 요주의 인물인 김상순과 괴력의 살집 청년 조경환, 금수저 엘리트 서호정의 모습이 그려진다.

‘수사반장 1958’은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1971~1989) 프리퀄로, 박영한

형사가 서울에 부임한 1958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무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이재훈은 대책 있는 ‘깡’을 장착한 난공불락의 촌놈 형사 ‘박영한’의 청년 시절을 연기한다. 누구보다 인간적이지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동휘는 잘못 걸리면 끝장나는 중남 경찰서 미친개 ‘김상순’을 맡았다. 가진 것이라고는 독기와 근성뿐인 김상순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실에 지칠 무렵 박영한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최우성은 남다른 괴력의 살집 형



년 ‘조경환’으로, 윤현수는 명수사관이 꿈인 고스펙 엘리트 ‘서호정’으로 분한다. 내달 19일 오후 9시50분 첫 방송.

140분 휘몰아친다...‘재벌X형사’ 확대편성

안보현 주연 ‘재벌X형사’가 마지막 2회를 확대 편성한다.

SBS TV 금토극 재벌X형사는 15·16회를 각각 70분 분량으로 늘린다. 15회는 22일 오후 10시, 16회는 23일 오후 9시50분 전파를 탄다. 제작진은 “이수 부모 목숨을 앗아간 진범을 밝히기 위한 공조수사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25년이라는 시간 차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다뤄 극적 갈등과 반전 등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다. 아쉬움 없는 결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 드라마는 돈에는 돈, 뺨에는 뺨으로 맞서는 전대미문 재벌 3세 형사 ‘진이수’(안보현)의 수사기다. ‘마이네임’(2021) 김바다 작가와 ‘악귀’(2023)를 공동연출한 김재홍 감독이 만들었다. 1회 시청률 5.7%(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8회 최고 시청률 11.0%를 찍었다. 14회 9.8%로 추종한 상태다. 시즌2도 준비 중이다. 이미 김 작가는 극본 작업 중이며, 안보현, 박지현 등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